

# 전주대 교수들, 유별난 '새내기 사랑'

### 동문·기업인 등 22명, 자전거로 전주~제주 300km 달려 신입생과 소통

전주대 교수와 동문 기업인 등 22명이 최근 전주-여수-제주 간 300km를 달려 여수 및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대 신입생 18명을 만났다. 지난 1학기 이진호 교수와 선교직원 실 오형제, 조정석 직원은 코로나19로 학교를 경험하고 교수님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새내기들의 아쉬움을 이해하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전주에서 군산 44km와, 전주 부산지역 280km를 이동하여 학생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당시 많은 재학생과 동문 학교 및 교회 관계자들이 그들의 이동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장학금까지 후원했다.

특히 일부 교수와 임재권 동문(경영학과 85학번/국민은행 평화동지점장),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 등은 그들과 뜻을 함께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했다.

2학기에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전거를 타고 직접 제자·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이들은 전주에서 여수까지 자전거

로, 여수에서 제주까지는 선박으로 이동하고 제주도 일대, 한라산 횡단도로, 해안도로 등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교수와 동문, 기업인 등 22명이 최근 전주-여수-제주 간 300km를 달려 여수 및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대 신입생 18명을 만났다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는 "자전거로 11시간을 이동해 학생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주대 발전에

동참해서 기쁘고 전주대 학생들이 수퍼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수퍼스타로 거듭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예은 학생(한식조리학과)은 "교수와 동문들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안 믿기고 꼭 블랙카메라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학교를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애뜻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코사씨(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씨앗)' 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장학금을 후원받았다. 이 캠페인에는 총 126명이 참여해 1.67천원이 모금됐고 모인 장학금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이진호 교수는 "삼척으로도 거리적으로도 학교와 가장 먼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마음에 걸려 그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싶었다"며, "특히 한라산을 횡단하며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힘과 사랑,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물놀이장 및 실개천에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 "석교 물놀이장 안심하고 놀러오세요"

###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수질정화장치 등 설치

전북유아교육진흥원(원장 전금옥)은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이하 분원)의 물놀이장 및 실개천에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원은 도내 3~5세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일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외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계절놀이인 물놀이장과 실개천은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장소인데,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휴먼 기간 동안 자동 역세형 필터방식인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이물질이 섞인 물을 필터를 통해 여과 후 깨끗한 물 상태로 되

돌려 보내 녹조 및 벌레유충 등 오염원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화장치로 유아들이 쾌적하고 맑은 물놀이장에서 물과 친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원은 도내 3~5세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일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외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계절놀이인 물놀이장과 실개천은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장소인데,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휴먼 기간 동안 자동 역세형 필터방식인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이물질이 섞인 물을 필터를 통해 여과 후 깨끗한 물 상태로 되

/정은성 기자

### 4급 이상 공직자 48명 대상 전북교육청, 특별 청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 8층 회의실에서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4급 이상 공직자 48명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정 전북교육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이니셔티브챌린지' 영상 상영에 이어 김호철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가 '청렴과 공정 사회로 가는 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진행되는 청렴교육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28일~30일까지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단설유치원 원장(감), 직속기관 부장(과장) 및 교육지원청 국·과장, 영어체합학습센터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원격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교육 현장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 수영 선수들, 전국대회서 맹활약

### 금 5·은 11·동 6개... 한다경, 대회신기록 수립 2관왕

여자 자유형 장거리 간판 스타인 한다경을 비롯한 전북 수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2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김천에서 열린 '제10회 김천 전국 수영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6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열린 첫 대회다. 먼저 도 체육회 소속 한다경(사천)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을 맘껏 뽐냈다.

한다경은 자유형 400m에 출전해 4분 14초14를 기록,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에 올랐다. 또 자유형 800m에서도 8분45초14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울러 도 체육회 소속 박나리아와 최정민은 여자일반부 자유형 100m와 자유형 200m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남자일반부 개인혼영 200m에 출



강도의 면모를 보여줬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올해 첫 대회라 심적 부담이 컸을텐데 너무 잘해줬다"며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학술대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오는 22일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단의 3년차 연구추진 방향인 '공유'의 물질생활·지식·생산·나눔'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화상 플랫폼

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장 변주승 교수와 한국고전학회회장 이희용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주대 김윤의 교수의 사회로 총 6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성균관대 김진경 교수가 '제1발표: 조선 후기 여향문인들의 예술표현과 사상에 관한 고찰'을 발

문인화가들의 작품과 閨巷傳記集에 나타난 인간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추계예대 박순철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제2발표에서는 서울대 정공식 교수가 '조선시대의 사치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신형수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담당한다. 제3발표에서는 전주대 문경득 교수가 '19세기 말 '부민' 개념 의미의 변화 양상'을 발표하고 고려대 김기성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진행

전주대는 20일 스타센터 운누리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진행, 그의 사상과 교육에서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주대, 전주비전대, 한동대에서 공동으로 연사와 학교 관계자 기독교 교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동시 열렸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세계 3대 칼뱅주의자로 목회자, 신학자, 언론인, 정치가이자 교육자다. 특히 '질대주권', '영역주권'을 주장하며 기독교 중심의 학문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호인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카이퍼의 사상과 교

육'에 대해 손봉호 박사(기아대책 이사장)가 발제하고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손봉호 박사는 "카이퍼가 꿈꿨던 교육 중에서 가장 시할할 수 있으면서도 궁극적인 것은 사랑의 일꾼 양성이다"며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국 회장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은혜와 소명, 재능을 발견하여 이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학생들이 윤리적인 바탕 속에서 적성을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